

# Wycliffe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오색 찬란한 단풍과 함께 코 끝의 차가움을 느낄 수 있는 너무도 그리운 가을을 지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이 곳은 크고 작은 태풍이 연속해서 휩쓸고 지난 까닭에 나라 전체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와 교제를 하는 현지 주민의 가정으로 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으로 어린 딸을 키우는 젊은 부부의 가정인데, 저희를 불러 주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저희는 그 가정을 방문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많은 새로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와 교제하는 자매의 친 할머니, 자매의 여동생과 두 자녀, 또한 외가 쪽으로 성인이 된 조카들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 그 날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저희와 교제하는 형제의 어머니와 두 조카도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를 포함하여 모두 14명이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그들의 형편으로는 자주 먹기 힘든 생선 한 마리, 돼지 고기를 넣고 볶은 야채와 국으로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해서 어른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남은 반찬으로 그 나머지 식구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 정겨운 저녁이었습니다. 친가, 외가, 사돈등 가까우면서도 동시에 함께 하기 힘든 식구들이 전혀 스스럼없이 한 집에서 웃고 즐기는 '가족'의 모습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의 Computer 관련 일을 도와주는 현지 직원과 좀 더 가까와 지기를 원해서, 공휴일을 맞이하여 함께 근교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주 갈 수 있는 소풍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 해변 교회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 주고 있는 가정에도 연락을 해서 모두 세 가정이 같이 가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풍을 위해서 저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저들이 직접 장만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곳 사람

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음식을 매우 짜게 만들어 먹고, 국은 신 맛이 나도록 하고, 매운 것은 못 먹고, 고기류는 직화 구이를 해서 먹는등 저희의 조리 방법과 음식 재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 수에 맞추어 음식을 만드는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인원수에 맞추어 예약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날 아침까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계속 발생 하였습니다. 함께 가는 인원이 예상 밖으로 계속 늘어 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끝없는 가족 사랑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현지 직원은 본인 가족 외에 장모님, 처제 2명 및 본인 여동생등 4명이 추가 되었고, 해변 교회에서 같이 가기로한 가정도 여동생, 여동생의 아이 2명, 사촌등 4명이 추가 되어서 도합 16명이 소풍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기 전날 2명과 당일 아침 1명이 취소를 해서 그나마 인원이 축소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떠나기 직전까지 급하게 차량 조달을 하고, 음식을 추가로 준비를 해야 하는 등 매우 서두르는 듯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고마운 이들을 위한 조출한 소풍을 예상 했는데, 결국에는 대규모(?) 단체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준비가 잘 되어서 예정대로 소풍을 가게 되었고, 비록 처음 만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저희도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지난 11월 초에는 The Soul's Day라는 이곳의 공휴일이 있었습니다. Halloween Day도 아니고 Memorial Day도 아닌, 굳이 번역을 하면 '망자(亡者)의 날'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날을 위하여 이틀전부터 가족들은 묘소를 찾아가서 묘비 근처에 가족들이 임시로 거할 수 있는 텐트를 치고 온 가족이 이틀동안 밤, 낮으로 함께 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의 성묘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전 가족이 이틀 밤, 낮을 묘지에서 지날 정도로 큰 가족 행사입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집이 묘지의 입구와 약 50 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동안 비교적 조용했던 동네가 이 공휴일을 맞이하여 묘지로 들어 가려는 성묘객들로 인하여 종일 집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마침내 호기심이 발동하여 해가 진 후에 복잡한 그 곳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모이고, 또한 과격 집단의 폭탄 Terror 소문도 있기 때문인지 중무장을 한 군인들이 촘촘히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고인의 묘지에서 고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틀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애들은 뛰 놀고, 주위에는 행상인이 돌아 다닐 정도로 분위기는 매우 밝았습니다. 곳곳마다 촛불을 켜 놓고 많은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마치 온 가족이 즐거운(?) 캠핑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날은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를 위하여 흠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저희의 어릴적 좋았던 기억들을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어린이가 어린이가 다운 모습이 아직 그대로 있고, 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모습도 저의 기억 속의 예전 모습과 아주 흡사하게 남아 있고,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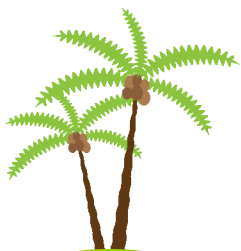
별히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아주 생생하게 실감이 나는 곳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모와 자식만의 관계가 아닌 넓고 깊은 그 무엇인가가 있음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보여주신 '가족'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 12:50)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